



티모르 델리탐의 4월 이야기



1
아띠클라쎌
홍보 포스터
제작

2
Beti 병원
다녀옴

3
Dino 부활절
행사 다녀옴



5
외식
(라멜라우호텔)

6
센터 휴일
(비숍-가톨릭
주교- 장례식)

7
아띠클라쎌
홍보 시작



9
Dino 머리 자름,
조벤클라쎌
설문조사 실시



11
나들이
(구제시장, 한인
마트)

12
Ivo, Beti의 나
들이(구제시장),
Ivo의 보드게임
제작

13
아띠클라쎌
시작



16
마르띠누 집
방문(바울 탄생)



18
만두
중성화수술

19
외식(버거킹)

20
조벤클라쎌
홍보 시작

21
아북 생일

22
조벤클라쎌
홍보 포스터
추가 제작



24
조벤클라쎌
시작

25
Mana Udys와
미팅(피스커피),
5월, 6월 역할
과 규칙 정함



27
UN 이일청 박
사님과 점심
(나리스)



30
휴일(노동절),
조벤클라쎌를
위해 휴일 반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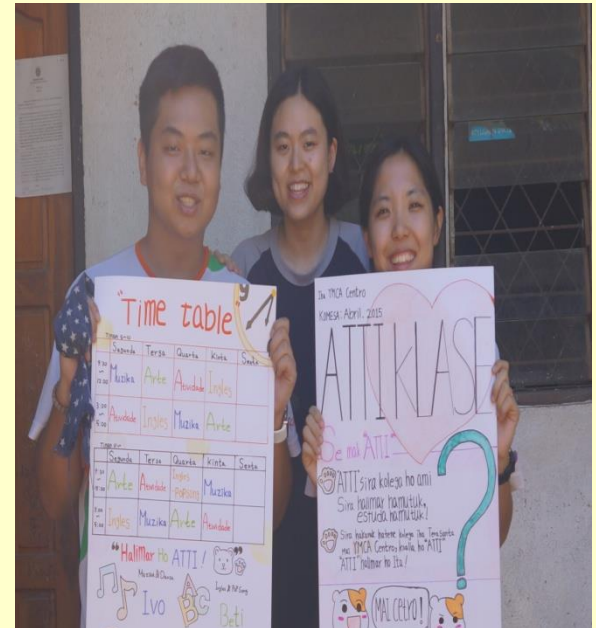


아띠클라쎄를 시작하다

준비

Beti가 4월 1일을 기점으로 점심을 잘 먹고 쉬고 있다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다. 고열과 복통에 시달려 말라리아와 뎅기 검사를 실시했는데,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다행히 부활절이 있는 기간이라 3~4일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센터에 다시 가는 날엔 다 나은 몸으로 갈 수 있었다. 아마도 그 간의 피로와 먹는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을 했고, 우리는 서로 몸 관리를 잘해야겠다고 다짐을 했다.

사실 그 주는 아띠클라씨 홍보를 준비하는 기간이었고, 우리는 Beti가 빠진 채로 열심히 준비를 해야 했다. Beti가 Arte 수업을 맡기로 했고 꾸미고 만드는 것을 잘 해서 Beti가 빠진 채로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지만 각자 숨겨둔 미술 실력을 발휘했다. 특히 Lisa의 숨겨둔 미술실력에 다들 감탄했다. 어린이와 청년 모두의 관심을 사기 위해 어린이 저격용과 청년 저격용 모두를 만들었다.



고양이 만두도 관심을 보이는 우리의 포스터. 오른쪽 포스터 2개는 모두 Lisa가 만든 것.



총 8장의 각기 다른 포스터와 팜플렛을 만들어 마을 곳곳에 포스터를 붙이고, 팜플렛을 나눠주며 홍보를 했다. 어린이와 청년은 물론 아이 부모님들에게도 열심히 홍보했고, 3월에 친해진 아이들에게 홍보를 부탁하기도 했다. **현재 센터엔 마나 우디스도 모르는 뉴 페이스들이 가득한 걸 보면 홍보는 성공적이었던 것 같다.**

Atti Klase 시간표

Ki' ik(10살까지)

	월	화	수	목	금
오전 9:30-11:00	Muzika	Arte	Atividade	Ingles	Lulun suratahan
오후 15:00-17:00	Atividade	Ingles	Muzika	Arte	

Bo' ot(11살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과 오후엔 Joven Ingles Klase

	월	화	수	목	금
오전 9:30-11:00	Arte	Atividade	Ingles	Muzika	Lulun suratahan
오후 15:00-17:00	Ingles	Muzika	Arte	Atividade	

소개

어린이 수업에선 **우리나라 동요**를 떼뚱어로 번역해 아이들과 같이 부르는 시간을 가졌고, 여기에 율동을 더해 **율동과 노래**를 함께 가르쳤다. 또 아이들의 집중력이 낮아 1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수업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댄스를 하나 알려주고 싶었다. 현재 **한국 가요 '빠빠빠'**를 30초 정도로 편집해 춤을 알려주고, 함께 춤 추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느낀점



내가 Muzika 수업에 바라는 것은 노래를 잘 부르고 춤을 잘 추는 것보다는 **여기 온 시간이 정말 즐거웠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웃는 얼굴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사실 하나 뿐이었다.

하지만 쉽지는 않았다.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 곳 **아이들은 냉정한 편이다. 재미가 없으면 돌아서고 재미 있으면 웃으면서 참여를 한다.** 이렇듯 날마다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처음에는 내가 번역도 하고 춤도 쳤지만 **아이들 반응이 미적지근하고 재미있어 보이지 않았다.** 그럴수록 **얼굴에 철판 깔고 옆에서 끈덕지게 노래도 부르고 같이 하자고 말도 걸었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예전에 알려준 노래도 기억하고 율동도 하면서 은근히 계속 부르고 다닌다는 것을 알게 돼 기분이 좋다.** 또 '빠빠빠' 춤을 출 때 음악을 계속 틀어 놓고 춤을 추다 보면 어느새 내 주변에 아이들이 모여 같이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이제는 점점 더 어린이 수업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나중에 다같이 노래하는 것과 춤 추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거나 혹은 YMCA 노래에 맞춰 춤추는 것을 알려 주고 플래시 몹처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소개

3월 한 달 동안 마나 메리의 수업에 참관하거나 수업 진행을 하며 관찰한 결과, 나이나 성별에 상관 없이 많은 아이들이 미술을 좋아하지만 주제에 맞게 스스로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고 완성할 수 있는 아이는 많지 않고, 보통 한 두 개를 그리다 말고 내게 대신 그려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Ki'ik 수업의 목표는 아이들이 스스로 그림을 완성하도록 하되, 아이들이 그리기 좋아하는 동물, 사람, 꽃 등을 어떤 순서 순서로, 어떻게 그리면 쉬운지 가르치는 것이고, 통제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가끔은 파스텔, 물감 등의 색다른 재료를 사용한다.(보통 연필과 크레파스만 사용한다)



느낀점



3월의 미술 수업은 마나 메리가 진행하던 우리가 진행하던 아이들이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라기 보다는 그냥 그림을 그리는 시간으로 느껴졌다. 아직 그림을 그리기엔 많이 어리거나 혼자 그리기를 어려워하거나 수업 주제 대신 자신이 원하는 그림만 그리거나 아이들의 행동과 수준이 제 각각이라 진행과 통제가 어렵게 느껴졌다.

4월, Ki'ik과 Bo'ot을 나누고 수업 진행의 방식을 바꾸면서 **아이들이 이전보다 훨씬 집중을 잘하고 태도가 좋으며** 이제는 거의 모든 아이들이 혼자서 그림을 완성한다. 특히 3월엔 장난기가 많아 통제가 거의 안 됐던 남자 아이들이 지금은 거의 모범생이 됐다.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보일 때, 혼내기 보다는 아이들이 좋은 태도와 행동을 보일 때마다 이름을 부르며 칭찬을 했는데, 좋은 방법인 것 같다.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4~5살 정도의 어린 아이들 중 스스로 그림을 거의 그리지 못하는데, 계속 내게 그려달라고 칭얼대 **수업 전반에 방해가 되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한 부분과 4~10살이 참여하니 아이들 수준 차가 큰데, 어떻게 하면 모두가 다양한 재료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미술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지, **수준 차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한 부분이다.



드디어 아이들 스스로 키티를 그릴 수 있게 됐다.

처음으로 파스텔을 사용해 바탕색을 칠했다.

소개

3월 한 달 동안 관찰한 결과, 10대 초반의 아이들도 연필과 크레파스만 사용해 그림을 그려도 제법 자주, 열심히 참여했지만 Bo'ot은 아이들의 수가 Ki'ik보다 적고 통제의 어려움도 적으니 보다 **다양한 재료, 다양한 방법으로 미술 수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보통 연필, 크레파스, 사인펜, 색연필 등의 재료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가위, 풀, 매직, 파스텔 등의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다양한 경험은 물론 수업에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또 홀수 기수는 공통적으로 **350PPM 캠페인**을 진행해야 하는데, 단기 캠페인보단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좋을 것 **같아 이와 관련한 미술 수업을 주 1회 정도** 진행한다. 다 읽은 잡지, 신문, 종이상자 등을 활용해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기를 하면서 **환경에 관한 설명과 함께 집에서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미술 놀이를 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자 한다.



Arte(미술) ; Beti

Bo'ot



느낀점

그림을 색칠하기 전 밑그림만 보면 Ki'ik과 Bo'ot의 수준 차이가 연령 차이에 비해 그리 크지 않고, bo'ot 아이들 역시 공간 활용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초반엔 보통 A4 용지의 절반도 채우지 못할 때가 많았다. 또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고 만들기를 하는 것을 설명함에 있어 나의 떼뚱어 구사 능력이 부족할 때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거의 매 시간 예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확실히 몇몇 아이들은 눈에 띄게 공간 활용 능력이 좋아졌고, 그 중 소니아는 공간 활용 능력은 물론 그림 실력이 나날이 좋아져 이제는 예시와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그림을 잘 그린다. 다른 아이들도 **처음엔 예시와 똑같이 하려 애를 썼는데(내가 나뭇잎을 25개 그리면 아이들도 똑같이 25개를 그리는 정도였다), 지금은 예시를 참고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림을 그리고 만드는 아이들이 늘어 좋다.**

350PPM과 관련한 미술 수업을 진행하는 건 나와 팀원들 모두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이들도 재미있어 하는데, **티모르엔 환경에 관한 교육이나 재활용에 대한 개념이 없고, 이를 뜻하는 단어 조차 없는 경우도 있어 설명이 좀 어렵긴 하다.** 수업이 거듭될 수록 아이들의 실력 차가 커지고 있고, 아이들 스스로도 차이를 느낄 것 같은데, 수업을 어려워 하거나 지루해하는 아이 없이 모두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Ki'ik과 Bo'ot모두 Arte 수업에서 사용하는 물품 대부분이 한국 제품인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파스텔, 아크릴 물감처럼 티모르에선 구하기 힘든 물품을 수업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또 색연필, 크레파스처럼 티모르에서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을 굳이 한국 물품을 가져와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350PPM Arte 수업으로 다 읽은 잡지와 신문을 활용해 만든 아이들의 작품이다,

Atividade(몸 놀이) ; Dino

Ki'ik

Bo'ot

소개

일종의 체육 수업으로 뛰노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몸 놀이를 알려주는 수업**이다.

일주일에 작은 아이들 2번, 큰 아이들 2번, 총 4번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작은 아이들에게는 여러가지 몸놀이를, 큰 아이들의 경우, 남자 아이들은 축구를, 여자 아이들은 공을 이용한 놀이를 알려주며 함께 즐기는 수업이다. 현재까지 **변형 투호, 변형 피구, 칠교 놀이, 의자 뺏기** 등을 하며 같이 뛰놀았다.



느낀점

몸 놀이 수업을 맡게 되고 나름 이런 저런 컨텐츠들을 생각해 티모르에 왔지만 생각보다 컨텐츠 소비가 빨라서 초반에 애를 좀 먹었다. 아이들은 단순하고 재미있는 놀이를 찾는데, **내가 생각 해온 것이나 준비한 것들은 아이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게다가 오전 수업을 진행할 때는 센터에 오는 **아이들의 수가 적어 생각했던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도 몇 번** 있어 그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재미있게 수업에 **참여했고 몸풀기로 했던 놀이 중 하나는 수업 전이나 수업 후에도 아이들이 계속 하자고 하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다. 아무래도 몸 놀이 수업이라 팀원들이 보조교사로 들어오면 같이 뛰놀기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군말 없이 괜찮다고, 재미있다고 해줘서 고맙다.**



소개

Ingles는 **이전 기수부터 수요가 높은 수업**이라고 판단해 개설했다. 현재 Ingles는 **금요일의 Joven** 수업을 포함해 **연령별로 분류되는 3가지 수업**이 있다.

Bo'ot 수업의 경우, 애초부터 수업에 대한 열정이 있는 학생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다.

가장 기초적인 ABC와 파닉스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인사말과 가벼운 문법 등을 학습했다. 또 매 수업의 **마무리에는 chant, 게임, 퀴즈** 등을 함으로써 어렵고 지루할 수 있는 수업을 다소 재미있게 풀어가려고 하고 있다.



느낀점

Bo'ot 수업은 현재, 수업 내용이 조금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수업을 진행하는 내가 직접 느끼기에는 **매우 평탄하게** 흘러가고 있다. 오전 오후 모두 수업에 **참가하는 인원도 평균 10명 정도**로 적당하다. 저번 기수에게 숙제를 내줘도 **관찮을 거라는 조언**을 받은 덕분에 **숙제를 내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모두 성실하게 해오고 있어** 매 수업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



소개

현재 Ki'ik 수업 내용은 영어 단어를 따라 쓰는 학습지 학습과 간단한 Chant 등을 주로 하고 있다. 8~10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어려서 영어 수업을 따라 올 수 없거나 영어 수업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보조 교사 Beti가 사무실에서 블록 놀이를 하게 함으로써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는 학습지를 통해 숙제도 내주고 있다.



느낀점

Bo'ot 수업과 달리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Ki'ik 수업은 한 달 동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 처음 한 주는 그림과 영어 단어를 접목한 그리기 수업을 했었는데, 두 개 정도의 단어를 외우는 성취도는 높은 편이었고, 또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수도 매우 많았다. 그러나 수업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또 영어를 제대로 배우고 싶어하는 9~10세 아이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업 내용을 대대적으로 변경했다. 현재는 학습지를 통해 숙제도 내주는데, 이를 통해 출석부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다만 너무 많은 인원이 온다던가 아이들이 학습지를 잃어버릴 때에는 센터 물품을 낭비하는 것 같아 걱정이 들기도 한다.





Joven Ingles 수업을 하기로 결정하다!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수업만을 진행하기엔 아쉬움이 있어 청년들과의 수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어와 영어 중 영어 수업을 원하는 청년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설문조사에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청년이 많아 수업이 잘 될 것 같은 생각과 함께 친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들떴다.

매주 금요일, 오전과 오후에 수업을 하기로 했고, 수요가 많을 경우, 강의를 2개 더 개설할 생각이었다.

홍보를 할 때는 La selu(무료)라는 점을 강조했고, 이에 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청년이 많아서 교실은 이렇게 작운데, 너무 많은 청년이 오면 어쩌나 걱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지 않았다...

홍보를 하며 만났던 청년들 대부분이 “Bele(갈 수 있어!)”라고 외쳐서 너무 많은 청년이 오면 어쩌나 걱정했으나 그건 기우였다. 오전 수업엔 정말이지 단 한 명의 청년도 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대로 주저 앉을 수는 없어 오후 수업 전까지 다시 청년들 한 명 한 명과 아이 컨택을 해가며 홍보에 열을 올렸고, 그 덕분인지 평소 센터에 자주 오는 아리따의 언니인 조지나가 수업에 왔다. 학생 한 명에 선생님이 3명인(Ivo, Lisa, Mana Udys) 웃지 못할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한 명의 학생이라도 온 것에 감사하며, 전략을 수정해 센터에 자주 오는 아이들의 형제들을 공략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울지마, 이보. 우리에게 다음주가 있잖아



조지나, 고마워!!



환상의 콤비, 우리 사전에 포기란 없다!

(Lisa도 동의하는지 모르겠으나 Ivo 말로는 환상의 콤비란다)

설마 설마 했지만 정말 학생이 한 명뿐이자 충격을 받은 Ivo와 Lisa는 홍보 포스터를 더 만들어 한 번 더 홍보하기로 결정했다. 센터에서 가까운 곳과 먼 곳에 홍보 포스터를 붙이는 것은 물론이고, 센터에 자주 오는 아이들에게 형제가 있다면 Joven 수업을 홍보해줄 것을 거듭 부탁했다.

그리고 5월 1일, 2번째 Joven 수업 시간이 찾아오고...

To be continued... 5월호를 기대하세요.



울지마, 이보. 우리에게 다음주가 있잖아



조지나, 고마워!!

소개

Ki'ik과 Bo'ot 아이들이 함께 하는 유일한 수업으로 종이 접기와 그림 그리기를 가르친다. 남녀 할 것 없이 모두 좋아하는 수업으로 **평균 30명**이 넘는 아이들이 참여하고, **많을 땐 5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참여하기도 한다. 3~4살의 아주 어린 아이들, 처음 보는 낯선 아이들도 금요일이면 센터에 많이들 찾아온다. 아이들이 종이 접기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최대한 쉽고 간단한 종이 접기** 위주로 가르치고 있다.

느낀점

우리의 떼뚱어 실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종이 접기를 해본 경험이 적어 처음엔 대부분이 우리 도움 없이는 완성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몇 몇 아이들이 눈에 띄게 잘 한다. 특히 Arte 수업에선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아이 몇 명이 이 수업에선 상당히 잘 해 자신감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아 보기 좋다. 30명 이상의 아이들이 참여할 경우, 통제가 쉽지 않아 교실 분위기가 소란스럽고, 정신이 없어 물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 아이들이 오는 시간이 제 각각이라 같은 걸 몇 번이나 반복해야 하는 점, 한 번 수업에 사용하는 물품(색종이, 풀, A4용지)이 너무 많은 점은 어렵고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아이들이 이 수업을 기다리고 좋아하는 것 같아 즐겁게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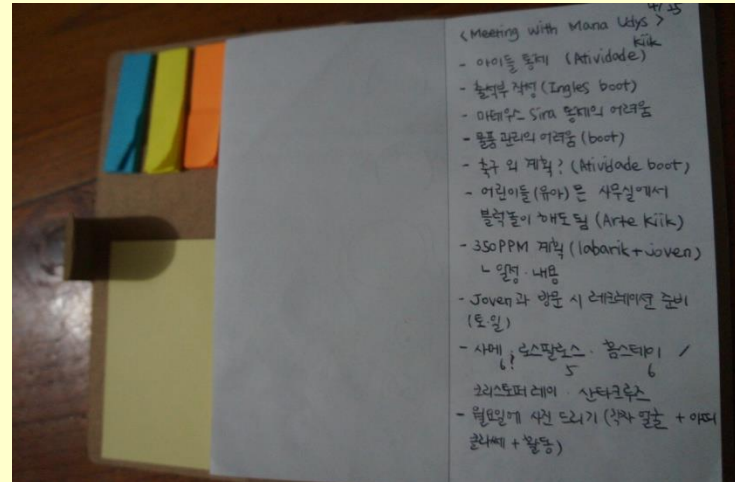
든든한 지원자, 마나 우디스와의 미팅

아띠클라씨 2주차가 되던 주 토요일, 우리는 피스커피에서 마나 우디스와의 미팅을 통해 수업에 대한 피드백과 우리가 궁금해 했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각자 수업에 대해 뭐가 부족했고, 뭐가 좋았는지 자세히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Ingles Bo'ot 수업에는 출석표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것과, Atividade 수업에 축구 외 다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 등을 말씀해 주셨다.

그 밖에는 각자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느낀 어려운 점에 대해 조언을 구했는데, 가령 수업 시간에 교실에 들어와서 말썽을 피우는 남자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수업에 사용하는 지우개 등의 물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등을 여쭙보았다. 마나 우디스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라, 답을 정해주진 않으셨지만 우리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공감해주셨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들도 있음을 알려주셨다.

2주 동안 아띠클라씨를 하면서 **생겼던 많은 고민들과 걱정들이 정리되는 시간**이었다. 또 5월과 6월에 있을 우리의 스케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도 했다.

+ 사실 마나 우디스와 회의를 하게 된 것은 보다 편한 환경에서 진솔한 대화를 하고 싶어서였다. 그래서 마나 우디스에게만 미팅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고 피스커피로 장소를 정했다. 그런데 그 다음 월요일 센터에서 만난 세피(총장님)은 회의 장소가 센터인 줄 알고 토요일에 출근을 했었다고 우리에게 씩씩하게 웃으며 말씀하셨다. 의도치 않게 세피를 소외시킨 것 같아 죄송하다 π.π





테라산타 이야기

아북과 레나의 신경전



VS

이름 : 아북

나이 : 11살

특징 : 12기 라온아띠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사랑 받은 것으로 보임.

학습 의욕과 욕심이 있으며 푹푹함.

동네에 가족이 많아 주로 사촌들과 어울림.

아직 사춘기에 접어들기 전, 어린이로 파악됨.

이름 : 레나

나이 : 12살

특징 : 마나 우디스도 잘 모르는 뉴 페이스. 눈에 띄는 예쁜 외모에 처세술이 상당함.

학습 의욕은 있으나 뒷심이 다소 부족함.

스킨십을 상당히 좋아함.

사춘기에 접어 든 청소년으로 파악됨.



노파



아리따



비가티



네티



소니아



베비



이나

아북과 레나의 신경전

아북은 지난 달, 개근상을 주고 싶을 만큼 성실하게 센터에 나왔다. 오전엔 우리의 떼뚱어 선생, 오후엔 미술 수업의 성실한 학생으로 거의 매일 센터에 나와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4월, 우리들의 아띠클라쎄를 시작하면서 3월엔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던 레나, 네티, 소니아가 매일 오전과 오후 수업 모두에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구 세력 아북과 신 세력 레나** 사이엔 영화 '퀸카로 살아남는 법'을 떠올리게 할 만한 **세력 다통**이 벌어졌고, 그 중심엔 안타깝게도 평소 여자 아이들과 잘 어울리는 **Dino**가 있어, Dino로서는 곤란하고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아이들은 Dino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서로를 질투했으며 이내 Dino뿐 아니라 우리까지 서로 차지하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굴종의 열매는 달다**고 했던가, 어느 순간, 세력 다통은 끝이 났고(**아북이 굽히고 들어간 느낌이다**), 3월과 다르게 우울하고 소극적이던 아북은 차츰 미소를 찾아 지금은 레나와 제법 잘 어울리고, 더 이상 수업에도 빠지지 않으며 장난기도 되찾은 듯 해 다행스럽다. **이 평화가 부디 오래 가기를.**

레나 무리인 네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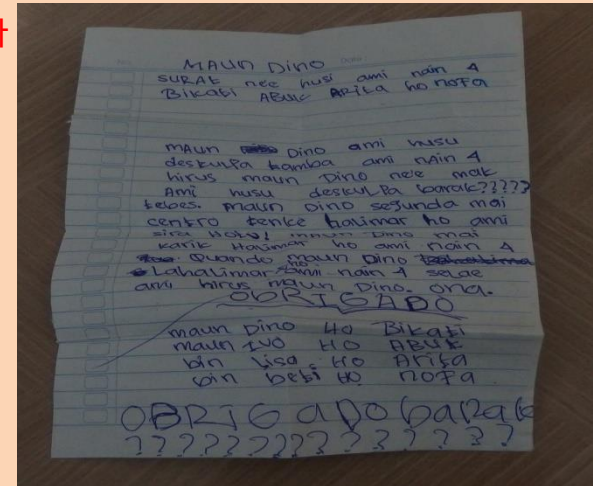


전쟁의 서막 ; 나보고 아북에게 배우라고?



아북 무리인 노파

노파 너마저. 아북 속은 타 들어가고 있겠지



아북 무리의 편지 ; Dino, 우리도 좀 봐줘

청년과 친해지기 ; 쉽지 않음

티모르 딜리에 온지 벌써 두 달이지만 청년들과 만나고 친해지는 일은 쉽지 않다. 우리가 매일 테라산타를 오가며 만나는 청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어디에 가는지 묻긴 하지만 보통 대화는 딱 거기까지다. 청년들과 친해지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은 있지만 정작 무슨 대화를 하고, 어떻게 친해지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다. 또 '왜 우리가 친해져야 하는 대상이 반드시 청년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도 아직 찾지 못했다. 테라산타는 큰 마을이 아닌데도 여전히 센터와 라온아띠를 모르는 아이들이 있고, 알면서도 오지 않는 아이들이 있고, 아이들이나 청년들뿐 아니라 아이 부모들도 우리에게 대한 관심이 많고 호감도가 높아 우리를 집에 불러 대화하거나 함께 하고 싶어한다. 아이들, 청년, 어른들과 모두 친해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의 마음, 체력, 시간이 그 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 반성하면서도 변화는 쉽지 않다.

우리 중 청년들과 친해지기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은 Ivo다. Ivo는 남자 청년들에게 자주 다가가 말을 시키고, 머리를 잘라달라 부탁하기도 하면서 여러 청년과 친해졌다. 물론 친해진 청년 중 일부가 Ivo의 모자를 탐내기도 하고, 센터 물품을 빌려달라거나 달라고 하기도 해 곤란할 때도 있지만 적당한 방법으로 거절하며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4월 24일부터 청년 영어 수업을 시작했는데, 이 시간을 계기로 좀 더 많은 청년과 만나고, 대화하고, 친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모두의 센터가 될 수 있을까?

지금 센터는 아띠클라쎬 시작과 함께 **급격한 멤버 전환**을 겪고 있다. 아이들 분류는 크게 3월 Arte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던 **'3월 멤버'**들과 아띠클라쎬를 홍보하던 중에 만나 친해진 것을 계기로 센터에 오기 시작한 **'레나 무리'**, 그리고 센터에서 조금 먼 골목에 살고 있는 **'7남매'** 등으로 나뉜다.

알리세와 로빈야 자매, 이들과 친한 부이, 떼띠, 얀띠와 아빠띠 자매, 작은 따시아, 큰 따시아와 셸시아 자매, 센터 바로 앞에 사는 에피와 동생들, 루시, 티나 등 Joven(청년) 나이의 큰 아이들, 멀리서 센터까지 찾아오던 나리아와 동생들 등이 3월의 주된 멤버였다. 그런데 4월 초 아띠클라쎬를 **시작하고는 3월 멤버 중 대부분이 센터에 오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특히 부이, 알리세 등은 그 시기에 마을에 유행하는 간바레(그림 카드로 하는 게임인데, 도박과 닮아 있다)에 푹 빠져서 급기야 마을에서 우리를 보고도 인사 조차 하지 않은 적도 있다.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카드 게임이 유행한 탓도 있지만 아띠클라쎬를 시작하고 **새로운 아이들이 너무 많이 오니 센터 분위기가 바뀌어 원래 오던 아이들이 오지 못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3월 멤버인 떼띠, 로빈야, 알리세.
3월엔 거의 매일 센터에 왔는데, 지금은 카드 게임에 푹 빠져있다.



센터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데도 열심히 나와 그림을 그리던 나리아와 동생들. 요새는 아이들이 심부름할 때 마주치는 게 전부다.

모두의 센터가 될 수 있을까?



아미클라씨 홍보 중 네티 집 담장에 포스터를 부착하고, 그날 오후 네티 집 앞에서 놀았던 것을 계기로 우리와 친해진 레나, 네티, 소니아, 아비나, 이나, 베비. 이 아이들은 4월 한 달 동안 오전, 오후를 막론하고 Bo'ot 수업에 성실히 참여했다. 덕분에 우리는 Bo'ot 수업마다 교실이 꽉 차는 기분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 워낙 부지런한 아이들이라 늘 우리가 출근하기도 전에 센터에 와서 우리를 맞아주고, 애교도 많고 수업에도 열심히 참여해 벌써 우리와 둘도 없이 친한 사이가 됐다. 아이들 수가 많다 보니 센터 분위기가 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센터 앞 운동장에서 놀던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노는 수줍은 남자 아이들에게 몇 마디 말을 건넌 것이 계기가 되어 시작된 7남매의 센터 방문. 어리지만 똑심 있는 우주, 발랄한 오나와 모라, 수줍은 매력이 있는 레티, 여자 아이들의 마음을 흔든 테오, 든든한 자와 이반이다. 7남매는 늘 함께 센터로 와서 사이 좋게 수업을 듣는다. 지금까지 마을 아이들과 교류가 많지 않았는지 다른 아이들과 관계에 있어 어려워하고, 아이들이 많으면 아예 수업에 참여하지를 않는다.



4월, 아이들이 바로 눈 앞 운동장에 있는데도 센터로 데려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아무리 말을 걸어도 우리를 거들떠도 보지 않는 아이들은 바로 카드 게임, 간바레에 빠져있었다.

간바레는 근처 키오스(구멍 가게)에서 50센트면 살 수 있는 카드로 게임 방식이 다양한데, 카드를 잃거나 딸 수 있는 것이 도박과 닮아 있다. 아이들은 적게는 한 몽치부터 많게는 봉투 가득 간바레를 갖고 있다.

우리는 간바레가 도박성 게임이라는 점에서 걱정이 많았고, 실제로 이 게임에 빠진 아이들은 하루 종일 카드만 바라보고 있기도 했다. 또 수업에 들어와도 자리에만 앉아있고 카드를 꺼내서 놀기도 했다.

급기야 카드 게임으로 인해 소외 당한 우리는 친한 아이들에게 찾아가 게임을 배우기도 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테라산타 아이들의 장점 중 하나는 굳이 체육을 시키거나 운동을 시키지 않아도 놀이 방법이 굉장히 건전하고 활동적이라는 점이었는데, 간바레가 등장하고 나서는 3월에는 거의 매일 하던 줄넘기, 빈 깔라빔(잡기놀이, 얼음땡과 비슷함), 고무줄 놀이 등은 이제는 거의 인기를 잃은 상태다.

이제 카드 게임이 등장한지 한달 정도가 지났다. 지금은 그 인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큼 강렬하진 않다.

그러나 간바레의 인기는 수그러들고 있으나 판 당 10센트가 걸린 빙고 게임의 인기는 수그러들 줄 모르고,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빙고를 즐겨 더 많은 아이들이 이런 사행성 놀이에 빠질까 걱정이고, 다시 활동적이고 건전한 놀이들이 유행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전 기수가 가르쳐준 것으로 추정되는 'Ai-funan Roja lha nebee ka'는 예나 지금이나 수업이 끝난 교실에서 아이들이 즐겨 하는 인기 있는 놀이다. 거의 매일 하고 있으며, 가장 대규모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처음 우리가 이 놀이를 봤을 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너무 비슷해서 신기했는데, 이 놀이의 제목이 'Ai-funan Roja lha nebee ka'인 것을 듣고서야 라온아띠가 알려준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 놀이의 장점은 큰 아이들, 작은 아이들 할 것 없이 모두 모여서 참여할 수 있고, 평소에 줄넘기나 활동적인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던 아이들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이 놀이를 하는 아이들 중 대부분이 구호에 맞춰서 칼 같이 멈추지는 못하지만, 테라산타 스타일로 나름의 기준이 있어 놀이를 할 때면 늘 긴장감이 감돈다.



Dino의 체육 수업에서 몸풀기 놀이로 시작된 다리 찢기는 가장 최근까지 가장 인기가 있는 몸 놀이다.

Dino가 맨 처음 가르쳐줬던 아이들 뿐만 아니라 아주 어린 아이들과 남자 아이들까지도 모두 이 놀이에 빠져 있다. 우리 다리가 아이들 보다 긴데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유연하지 않아 자주 우리가 이기는 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매일 가위바위보를 하자고 달려온다.

처음에 우리는 참신한 몸 놀이이자, 힘도 많이 들지 않는다고 이 놀이를 반겼지만 다음 날,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며 괴로워 했다.

Martinu hadomi Arita ♥



구매자 : 마르띠누 (13살)
장난기가 많으며 수업 방해자로 유명했다. 그러나, 그의 수업 방해는 다분히 고의적이었으니...

“Hau hadomi Arita”
(나는 아리따를 사랑해)

첫사랑녀 : 아리따 (10살)
예쁘고 착함. 소외된 친구를 잘 챙겨줌. 평소에 아띠들에게 애정을 퍼부어주는 정 많은 성격.

“Hau la gosta martinu”
(나는 마르띠누를 싫어해)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은 마르띠누(개구쟁이, 마르페 형)가 뜬금없이 수업에 들어와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원래 우리의 수업에 거의 관심이 없던 마르띠누가 왜 이렇게 자주 수업에 참여하는 것인가?’ 의문을 품고 있을 때, 우리는 마르띠누가 들어오는 수업에는 늘 아리따(예쁨, 착함)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의 추측이 사실이 맞는지 의심하고 있을 때, 이보는 마르띠누가 아리따를 좋아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임을 주변의 증언을 통해 (아조, 8세) 알아 냈다.

그 후 우리가 직접 관찰한 것에 의하면, 마르띠누는 아리따 가까이에서, 혹은 멀리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다. 그의 구매 방법은 주로 괴롭히기. 덕분에 아리따는 마르띠누의 짓궂음은 장난에 자주 울음을 터트린다. 마르띠누의 서툰 구매 방식은 아직 아리따에게 잘 먹히지 않고 있는 듯 하다. 심지어 아리따는 어느 날 그 둘을 지켜보던 베틀에게 “Hau la gosta martinu(나는 마르띠누를 싫어해)”라고 선언까지 해버린 상태이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보는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며 안타까워했다.

지금 지켜보는 이들의 의견으로는 마르띠누의 첫 사랑은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다. 짝하면서도 귀여운 마르띠누의 서툰 애정 공세는 아마도 우리가 티모르에 있는 동안 계속 되지 않을까...

마르티누의 흔한 구애 방법



STEP 1 아닌 척 단청을 피우며 그녀에게 다가간다.



STEP 2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그녀에게 말을 건다.
그러나 시비조로...



STEP 3 아리따의 호감이나 관심은커녕,
“Hau la gosta Martinu.”라는 말이나 듣는다.

**마르티누의 서툰 첫사랑은
5월에도 계속되겠지...**

센터에서 생활하면서 3월, 4월 나와 친해지고 내 머리를 자주 잘라주는 청년인 Obet이 있다. 내 머릿도 잘라주면서 가위와 빗을 빌리는데 사실 머릿도 잘라 주기 때문에 내가 거절하기 조금 미안해서 한 두 번 빌려줬다. 가위와 빗은 여기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물건인 것 같은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한국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것이라 생각해서 빌려달라고 하는 것 같다. 티모르 특성상 여기 대부분이 중국산인데 물품이 좋지는 않다. 또한 라온아띠가 많이 왔다 가면서 좋은 물품들을 쓰고 하면서 보왔던 것들이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 달라고는 하지 않고 항상 빌려달라고 한다. 센터 물건 중에서는 축구공을 제일 선호한다. 센터 물건은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것이라 이해하는 것 같아서 찢러만 보고 웃으며 장난이라고 한다. 하지만 내 물건 중에서는 카메라와 모자 등을 오전에 빌리고 오후에 돌려 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한다.

Obet뿐만 아니라 다른 청년 심지어 아이들도 장난 삼아 자기한테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가위와 빗만 빌려줬는데 이 경우에는 쓰고 잘 돌려준다. 조금 친해지면서 이 친구가 혹은 이 마을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물건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다. 하지만 지내면서 조금은 오해가 풀렸다. 확실히 물건을 많이 탐내기는 하지만 Joven Ingles에도 참여하고 자기도 선물을 주겠다고 하고, 친구도 소개시켜주면서 고마운 점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조금은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또한 대부분 사람들이 정말 사소한 물건 혹은 안 빌려주기 애매한 상황에서 빌려달라고 하고 빌려 줄 수 있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의 줄타기를 정말 잘 이용하는 것 같이 느껴졌다. 그래서 오히려 “안 돼” 라고 말하기 보다는 조금씩 갈등을 하게 되고 내가 안 빌려주면 안 빌려 주는 대로 미안하고 찝찝함이 있고 빌려주면 계속 빌려주고 혹은 더 큰 것을 탐낼 것 같아서 걱정이 조금씩 되고 있는 한 달이다.

내가 선택한 최우선은 모자처럼 어찌하면 사소해 보이지만 한국이나 여기서 구하기 힘든 것들은 최대한 센터에 들고 가지 않는 것이고, 약간 못 알아 듣는 척 내 것이 아니라고 잘 모르겠다고 하루를 기다리면 은근히 여기 청년들이 다시 만나면 까먹고 물어보는 경우가 드물어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는 경우가 많았다. 동민 간사님이 말씀해 주신 바보가 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ㅋㅋㅋㅋㅋㅋㅋㅋ



기존의 아이들과 새로운 아이들 사이에 청소년 그룹에서는 나름 큰 세력 다툼이 있었다. 솔직히 처음에 나는 눈치를 채지 못하고 지냈지만 Beti와 Lisa의 말을 듣고 그리고 Abuk이라는 친구의 편지를 읽으면서 확신이 들었다. 우디스 간사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매번 기수마다 청소년 그룹은 무리들이 있고 거의 그 친구들만 센터에 나오고 나머지 마을의 청소년들은 그 친구들과 친하지 않아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대부분 청소년기의 여자 아이들인데 내가 그들의 특성과 마음을 잘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 아이들이 내 생각보다 영악하고 여우 같은 면이 있었던 것 같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혹은 마을에서 지내면서 서로 자기와 놀아달라고 하고 조금만 안 놀아주거나 지나치면 서운하다고 하면서 말을 해서 4월 중순까지는 센터에서의 행동에 굉장히 민감해 했다.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의 아이들과 원래 있던 친구들이 표면상으로는 잘 지내는 것 같고 조금은 상처들이 아물어가고 있는 것 같다. 사실 아직 확신은 들지 않는다. 요즘에도 새로운 Rena와 아이들이 대세를 이루어 가고 있다. 청소년들은 우리가 사실 같이 놀고 생활하자고 하면 잘 오지 않는 경향들이 있어서 Rena와 아이들이 친구들을 더 데리고 오고 형제, 자매들을 데리고 오면서 세력을 넓히는 것이 좋은 것 같다. 아직까지 내 솔직한 심정은 아이들이 다 같이 노는 것을 바라고 있고 그렇게 이상을 설정했지만 한 달 동안 이상이 많이 무너진 느낌이다. 하지만 내 개인적으로 5월 이후로 Rena와 아이들의 행동을 주시하고 조금씩 다른 아이들도 다 같이 노는 방식을 취하고 진행하고 싶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꼬맹이들이나 모든 사춘기가 지나간 청년들에게 관심이 더 가기도 하였다. 한 달, 모든 것을 알고 나니 Rena와 아이들 모두 여우로 보인다 ㅋㅋㅋㅋ



Beti의 생각

센터 활동의 시작은 교실 2개를 청소하는 일인데, 우리가 빗자루를 들고 가면 아이들이 서로 자신이 하겠다며 빗자루를 빼앗는다. 빗자루를 내어준 채 조금 민망하게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비질이 참 예사롭지 않다. 그 작은 손으로 어찌나 청소를 잘 하는지, 비질을 얼마나 자주 하기에 이리 잘하는 것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야무지다.

평소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아이들이 센터에 오지 않아 집으로 찾으러 가보면 대부분 빨래, 요리, 청소 등의 집안 일을 하고 있거나 아버지의 담배 심부름 또는 어린 동생을 돌보고 있는데, 그 조그만 몸들에 베인 부지런함이 안쓰럽고 아플 따름이다.

티모르 사람들의 삶을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하고, 아이들은 그 많은 집안 일을 하면서도 밝고 씩씩하지만(아이들 대부분 다른 나라에 대한 개념이 크지 않아 다른 나라의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 지는 거의 모르는 것 같다) 그럼에도 나는 그 모습이 불편하고 안쓰럽고 아프다. 아이들이 그냥 아이들로, 일하는 것보다 노는 것을 좋아하고 이에 익숙한 아이들로, 부지런하게 우리를 돕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지 요령을 피우는 철 모르는 아이들로 살 수는 없는 건지.

아이들이 돼지 오물이 가득한 흙 위에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맨발로 노는 걸 볼 때, 길에서 주운 쓰레기를 역시 아무렇지도 않게 입 안에 넣고 노는 걸 볼 때, 서슴없이 서로를 때리는 걸 볼 때, 이런 것도 문화라고 할 수 있는지, 이런 와중에도 행복은 있으니 괜찮은 거라고 할 수 있는지, 그것 역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다른 건 외면해버리는 게 아닌가 싶어 마음이 편하지 않다.

오후 내 그늘진 길가에 앉아 있는 청년들을 볼 때, 집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 여성 청년들을 볼 때, 너무도 젊은 것 같은 엄마아빠들을 볼 때, 지금은 이리 밝고 예쁘고 씩씩한 아이들의 미래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까봐, 고작 몇 개의 미래만이 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을 까봐, 그게 또 마음에 걸린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매일을 심각하고 우울하게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가는 게 느껴져서, 두 달이란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 버린 것 같아서 아이들과의 순간 순간마다 마음껏 웃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랑 받으면서 보내고 있다.

고민은 한국으로 가져가야지, 라온아띠 5개월이 끝나도 고민은 멈추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서.



Dino의 생각

센터에서의 활동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후회가 많았다. 아미클라세에 경우 조금 더 체계적으로 생각해올걸, 콘텐츠를 조금 더 많이 가져왔으면 좋았을 걸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수업은 청소년과 유아로 나눠서 진행했는데 청소년은 여자 아이들이 많이 수업에 참여하는 반면 남자 아이들은 거의 참여가 없어 아쉬웠다. 여자와 남자 둘 다 같이 수업을 하려 하지 않았고 오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기 때문에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은 적도 많았다. 작은 아이들도 비슷했다. 오후에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해서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별로 없었지만 오전의 경우에는 청소년들과 똑같이 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많아서 수업 진행이 잘 안된 적이 많았다. 언어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표현하지 못했고 아이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도 잘 몰랐다. 그럴 때 마다 내 수업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다. 내 수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것이 맞는지. 모든 것이 아쉬웠다. 점점 수업하는 게 힘에 부쳤고 짜증이 많이 났었다. 내 수업을 진행해야 할 때면 센터에 가는 게 즐겁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에 센터 활동에 처음 참여하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새로 온 아이들과 기존의 있던 아이들 간에 신경전이 많은 스트레스였다. 수업을 하면서도 수업이 끝나서도 어떻게 행동을 보여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아이들은 서로 자신들에게 신경을 써주지 않아 서운하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았다. 이후 센터에 오는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오더라도 수업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일에 대해서 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왔다. 방법은 없었다. 우리가 행동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고 아이들이 친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다. 지금은 서로 잘 지내기는 하는 데 아직까지도 이런 저런 사소한 불만을 몰래 와선 이야기하곤 한다. 앞으로 어떻게 변해가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Lisa의 생각

4월 한 달은 사실, 나에게서는 영어 수업을 더 잘 하고 싶다는 욕심이 제일 컸던 한 달이었다. 매번 수업이 끝나고 돌아오면 오늘 수업은 잘했는지, 아니면 부족했는지 매번 고민하고 아쉬워했었다. 수업을 잘하는 게 활동을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수업의 흥망에 기분이 많이 달라지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다. 걱정했던 것보다 우리의 아띠 클라쎄는 지금 잘 되고 있다. 사람이 없을 거라고 예상했던 오전 수업도 레나와 친구들의 합류로 매번 흥하고 있다. 덕분에 큰 아이들 대상으로 열어놓은 교실도 우리가 준비해놓은 의자가 부족할 만큼 아이들은 늘 많이 와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달 내 활동이 아쉬운 것은 매번 늦게 끝나는 수업으로 인해 막상 아이들과 노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잡기놀이를 한 지도 거의 몇 주가 지났다. 애들 손을 잡고 점프 놀이를 해주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몸 놀이를 하지 않으니 피곤한 건 덜하지만, 아이들과 많이 놀아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계속 나서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선생님이 아니라 친구가 되어야 하는 거였는데,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다.

조벤(청년)과의 활동에 대해서는, 4월 마지막 주에 처음으로 개설한 영어 수업이 우리에게 소통의 창구가 되어 줄 거라고 생각한다. 조벤들은 기본적으로 여자 단원보다는 남자 단원에게 먼저 다가간다. 그래서 나도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데, 이렇게 수업을 해서 내가 참여를 한다면 수업을 빌미로 대화할 기회를 더 많이 만들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비록 4월 마지막 주에 했던 첫 조벤 수업은 조지나 한 명만이 참여했었지만, 앞으로 천천히 더 늘어날 거라고 믿는다. 청년 대상 영어 수업은 분명 앞으로 계속 어렵겠지만, 열심히 해보고 싶다.



Dino의 부활절 이야기



Ester Day

티모르에서 크리스마스 다음으로 큰 행사인 부활절이 4월초에 있었다. 티모르에서는 국민의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행사에 참여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부활절 주일은 3월 21일 이후에 만월이 지나가고 오는 첫 일요일이다.

부활절 휴일로 센터도 잠시 휴식에 들어가 우리는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긴 휴가를 얻게 되었다.

휴가 중에 하루는 부활절 행사에 참여하였다. 산을 올라가는 순례길에 참여했다. 금요일 이른 아침부터 말끔히 옷을 차려 입고 산에 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니나 다를까 산에는 사람들로 뱅뱅이 차있었고 산을 올라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 정도였다. 티모르에서는 종교가 생활이라는 말이 저절로 생각나게끔 하는 풍경이었다.

(부활절 기간 동안 Beti가 아파 Ivo와 Lisa는 병간호를 하느라 산에 가지 못했다. 사실 못 간 건지, 안 간 건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Dino가 한 번은 가도 두 번은 못 가겠단다 ㅋㅋㅋ)



딜리팀이 주말을 즐기는 방법



주말 나들이



주말이면 항상 뭉쳐서 돌아다니는 우리들!
이번 달에는 지난 달에 갔었던 **라멜라우 호텔에서의 외식**과 3번 미끄롤렛의 종점에 있는 구제시장에 다시 방문해서 돌아다녔다.
그리고 비싸서 먹기 어렵던 **버거킹 햄버거**를 결국 먹고야 말았다. 주말마다 “우리 돈 많아”를 외치던 4월 회계 Ivo! 월말이 되면서 차츰 말수가 적어졌다.

구제시장을 갔던 날, Ivo는 마음에 드는 옷이 없다며 다음날 숙소 근처에 있는 구제시장을 다시 한 번 방문 했다는...



주말 나들이



(매일 “우리 돈 많아!”를 외치던 Ivo로 인해 결국 4월 회계엔 구멍이 났다. 5월 외식은 쉽지 않을 것 같다 ㅠ.ㅠ 어쩌면 없을 수도...)



지루할 틈 없는 숙소 생활



엄마, 아빠 보세요

저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진에 나온 요리는 전부 Beti가 요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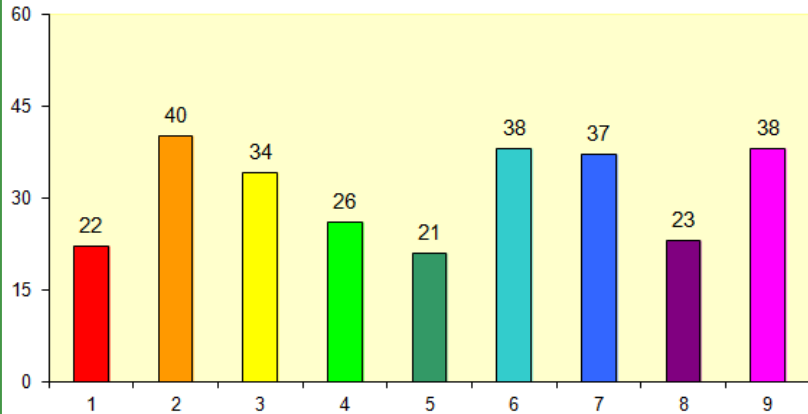


부모님은 물론 친구들까지 티모르에서
뭘 먹고 사는지, 음식이 입맛에 맞기는
한지 궁금해한다. 그래서 준비했다.
굽네치킨 뽀뽀하게 맛있는 구운 치킨,
Dino의 마지막 고추장을 탈탈 털어 넣
은 오징어 볶음,
맛다시로 간을 낸 골뱅이 무침,
조개 된장국과 버섯 브로콜리 볶음,
Mana Clara가 만들어주신 밀크티까지,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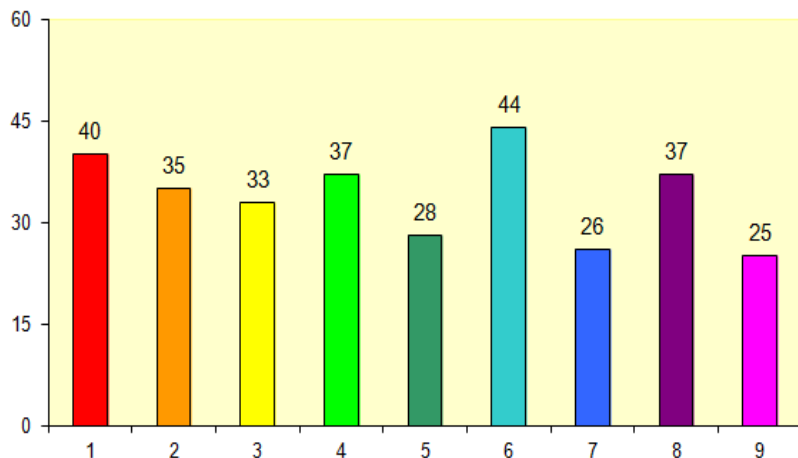
당신의 에니어그램 유형은?

Susan Rhodes, susan@enneagramdimensions.net



당신의 에니어그램 유형은?

Susan Rhodes, susan@enneagramdimensions.net



Ivo

3번 날개를 가진 2번 : 주인/안주인

- 건강 할 때 : 이들은 개인적인 연결을 맺고 다른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 줌으로써 사랑을 얻으려고 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보다는 자신의 능력에서 자존심을 얻는다. 사교적이고 말이 많으며 매력적이고 적응을 잘 한다.
- 평균일 때 : 야망을 가졌지만 친절하고 유머가 있다. 인간관계를 중요시하고 지나치게 친절하며 자신의 감정을 과장할 수도 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한 것에 대해 인정과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 가끔 자만심이 강하고 오만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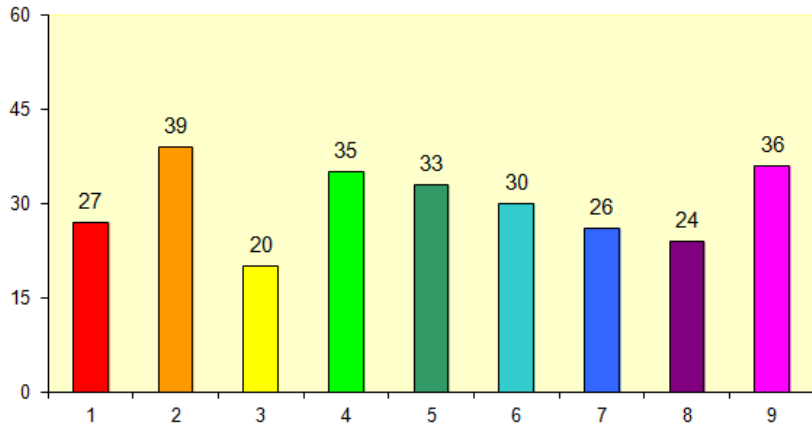
Beti

5번 날개를 가진 6번 : 방어하는 사람

- 건강 할 때 : 다양한 전문 기술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규칙과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지식 체계에 끌린다. 집중력은 있지만 관심사가 제한적이다.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하고 그들을 위해 싸우는 일을 할 때가 많다.
- 평균일 때 : 독립적이고 진지하며 다른 사람의 승인이나 조언을 구하는 일이 적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세상을 위험한 곳으로 여기며 파벌 나누기를 좋아한다. 스스로를 반항적이고 권위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여기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끊임없이 권위주의적인 요소가 많은 체제와 단체 그리고 신념에 이끌린다. 공격적이고, 자신의 안전에 위협한다고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이 된다.

당신의 에니어그램 유형은?

Susan Rhodes, susan@enneagramdimensions.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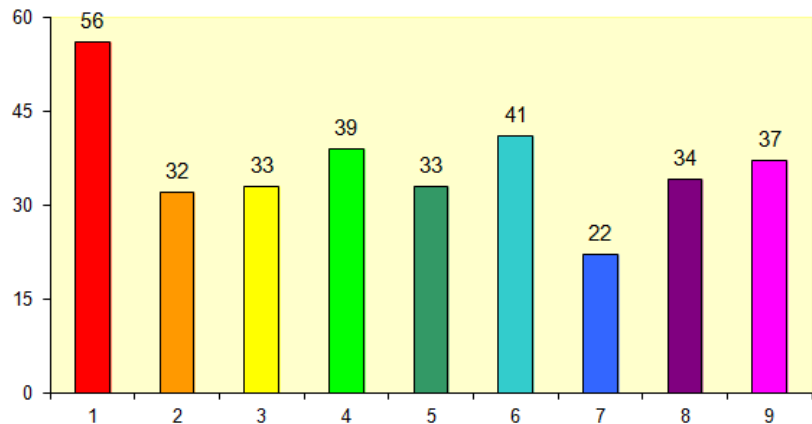
Dino

1번 날개를 가진 2번 : **봉사자**

- 건강 할 때 : 따뜻함과 진지한 목적의식이 결합되어 선함과 이타적인 봉사를 추구한다. **착한 사마리아인** 들처럼 남들이 꺼리는, 생색도 나지 않는 일을 기꺼이 떠맡는다.
- 평균일 때 : 자신의 **'이기적'인 태도와 감정을 없애야 한다는 부담감**을 항상 느끼고 있다. 앞에 나서기 보다는 뒤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삶에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감정적이지만 자신에게 관심을 끌어 오려고 하는 것을 어색하게 느껴서 감정적인 표현을 자제**한다.

당신의 에니어그램 유형은?

Susan Rhodes, susan@enneagramdimensions.net



Lisa

9번 날개를 가진 1번 : **이상주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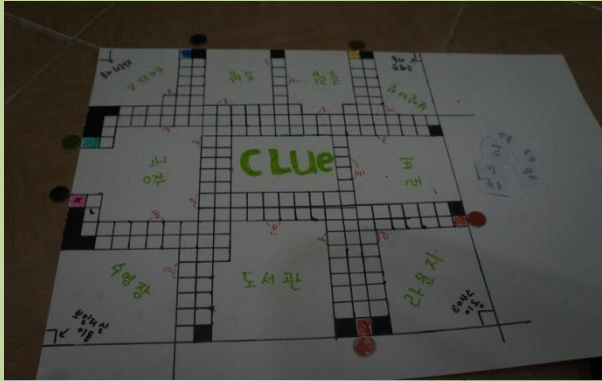
- 건강할 때 : 통찰력이 있고 현명하고 정중하다. 관대하고 친절하고 사려 깊으며 대게 **자연, 동물, 순수함을 사랑**한다. **학구적이며 차분**하다. 내향적이고 은둔적이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벗어나 자신만의 조용한 장소를 찾을 수도 있다.
- 평균일 때 : 경직되어 있고 **참을성이 없으며 냉소주의적**이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인간관계에 실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혼자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찾는다. **자만심과 우월감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겸손한 척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이번주의 노예는 누구입니까?

숙소의 보드게임에 서서히 질려 하는 팀원들을 위해 직접 CLUE를 제작한 Ivo.

그리고 무려 6달러를 투자한 일제 트럼프 카드로 4가지 이상의 게임을 실시했다.

사실 게임의 목적과 백미는 **노예 정하기**이다. 온갖 잡일들은 **육체적 힘**들과 함께 **그에 맞먹는 수치심**을 동반한다.



팀원 모두 '제발 이것만은 피했으면 좋겠다' 싶었던 숙소 공동 노예인 책장 정리(Mana Clara 추천). 브루마블에서 파산한 리사의 몫으로 돌아갔다.



Beti의 노예가 된 Ivo는 열심히 손빨래를 했다. 모두의 노예로 무릎 꿇고 비질을 하기도... (사진을 보면 엄마가 속상할 거라고 걱정 중이다.)

만두 이야기

중성화 수술



발정기마다 힘들어하는 만두를 보며 간사님들과 우리는 함께 고민을 했다. 중성화 수술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티모르는 아직 애완동물이란 개념이 없고, 이런 수술이 일반적이지 않다)

결국 중성화 수술을 했다. 보통 스트레스 때문에 성격이 온순해 지거나 소심해 진다는데, 만두는 정말 수술이 잘된 것인지 원래 성격을 벌써 찾았다.

실밥은 Mana Clara가 직접 풀었다.

경쟁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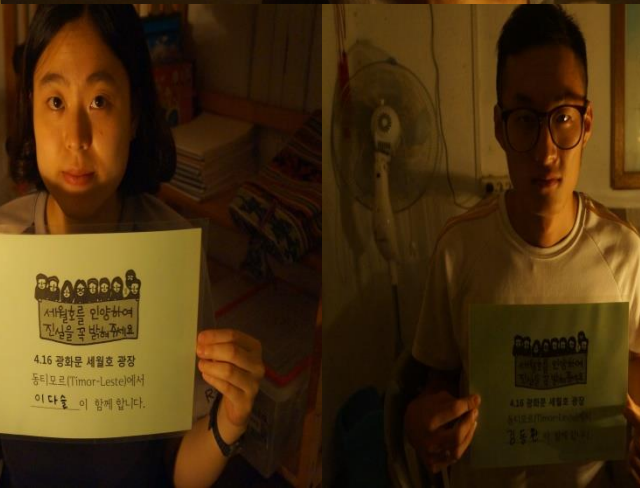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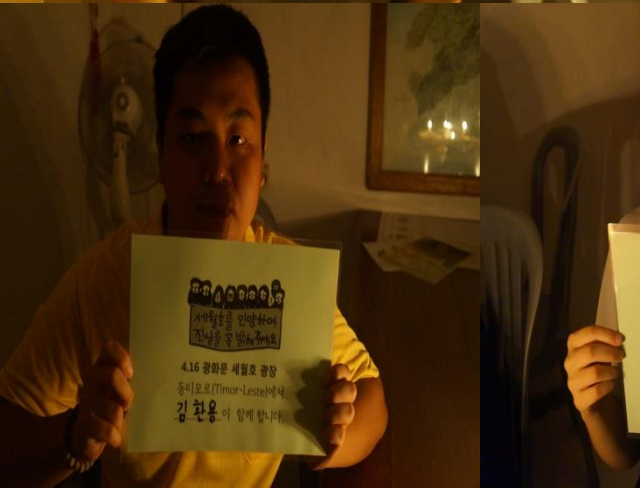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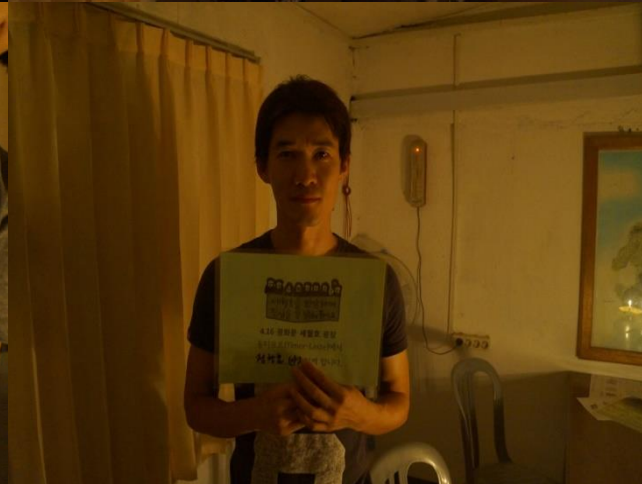
얼굴은 정말 예쁘지만... 얼굴은 진짜 예쁘지만... 얼굴만 예쁜 만두. 엄청난 백치미(Ivo가 머리가 나쁘다고 꼭 써야 한단다)를 자랑하고, 고양이인데 운동신경도 떨어진다.

Mana Clara 말씀으로는 티모르엔 예쁜 고양이가 적다고 하셨는데, 많다. 테라산타에도 있고, 심지어 새끼 돼지도 귀여워서 만두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만두야, 이제 너 어떻게 할래?

세월호 희생자 추모



4월이 되면서 Beti가 아프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우리끼리 몸 관리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려고 노력한 것 같다. 사실 3월에 힘들었던 점은 날씨나 활동하면서 신체적인 활동을 많이 해서 피곤한 정도였다. 또한 4월 1일부터 약 5일 정도 쉬는 날인 것을 알게 되면서 알게 모르게 정신적으로 긴장이 풀린 점도 있었던 것 같다. 그래도 정말 다행히 말라리아나 뎅기 같은 것은 아니었고 4일 정도 푹 쉬면서 제 컨디션을 찾았다.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몸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아띠 클라쎄를 준비하고 하루에 한 번씩 2시간 수업을 하고 그 수업을 준비하면서 3월보다는 피곤했던 것 같다. 점심 시간이나 저녁 시간을 쪼개서 잠도 늘었고, 일찍 잠들었고, 주말만을 기다렸던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매번 사먹고 물도 매번 벌컥벌컥 마시면서 생활을 하고 비록 가끔 배도 아프면서 지내도 아이스크림과 시원한 물을 포기 하지 않았던 것 같다. 확실히 피곤해서 그런지 보드게임이나 다른 게임들도 아띠 클라쎄 전 후 기점으로 확연히 줄었던 것 같고 주말에도 쉬는 위주의 활동을 한 것 같다. 그러면서 가장 좋았던 점들은 서서히 문화생활에 눈을 뜬 것 같기도 하고 피스커피만 주구장창 가는 일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구제시장에서 쇼핑도 하고 솔직히 먹고 싶었던 버거도 한번 먹어보고 심지어 5월에 나온 '어벤져스' 영화도 볼 계획도 세우며 지낸 것 같다. 그리고 4월 중순 경에 기연 간사님의 추천으로 에니어그램을 실시했다. 내 개인적으로 이런 심리적인 요소나 사람 성향을 아는 것을 재미있게 생각했고 간사님 말로는 믿음직스러운 테스트라고 말씀해주셨다. 각자 모두 에니어그램을 실시하였고, 나는 높게 나온 성향들이 있었다. 대개 나랑 비슷한 느낌이었다. 팀원들도 실시하였는데 대부분 맞는 것 같고 성향 및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못할 때의 상황을 보면서 생활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아직 서로 모르는 점도 많이 있는 사실도 알았고 알 수 있는 사실도 있었다. 반면에 Dino는 처음 했을 때 여러 다양한 요소가 다 비슷비슷하게 나와 기연간사님께서 거짓 삶을 산다는 얘기도 했었고 그만큼 우리가 서로를 안다는 생각도 들었다.

티모르 딜리팀은 일곱 팀 중 유일하게 한국인 간사님 2분과 함께 생활한다. 활동은 현지 총장님, 간사님들과 함께 하지만 함께 식사를 하고 주말을 보내는 것은 한국인 간사님들과 함께다.

조심히 잘 다녀오라고, 잘 다녀왔냐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활동 중 현지 간사님들과 혹은 아이들과 소통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토로할 사람이 있다는 것, 활동과 생활 전반에 대해 이해하고 위로하고 조언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고, 감사한 일이다. 특히 기연 간사님(Mana Clara)는 라온아띠 출신이어서 그런지 우리가 어떤 시점에 어떤 고민을 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고, 이에 대해 적절한 조언이나 도움을 주신다. 기연 간사님이 툭 던지고 가시는 도움에 우리는 매번 크게, 두고두고 감탄한다.

우리는 식사 시간이 매우 긴 편인데, 보통 점심은 1시간, 저녁은 1시간~1시간 반 가량이 소요된다. 밥을 먹는 속도가 느려서는 아니고, 매일 이런 저런 주제로 간사님들과 대화를 하기 때문이다.

활동이 힘든 날, 해야 할 일이 넘치는 날에는 긴 식사 시간이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자원 활동이 아니라 직업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간사님들은 우리보다 더 피곤하실 것 같아 이렇게 오랜 시간 대화하는 것이 관찮을까 싶을 때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 시간이 좋다. 나이도 전공도 직업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 이렇게 매일매일 서로의 일상과 생각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고 좋은 일인지, 서로 공감하고 공감 받는 일,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참 좋다.

4월 생활에 있어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사람은 이보인 것 같다.

티모르는 관광객이 거의 없고 외국인도 많지 않고 치안도 좋은 편이 아니라 여자 혼자, 여자끼리 외출은 자제해야 하는데, 가끔 개인적인 이유로 나가야 하는 일이 생기면 이보나 디누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을 해야 한다.

2~3일마다 한 번씩은 숙소 앞 슈퍼에서 18리터 가량의 무거운 물을 두 통씩 사와야 하고, 한 달에 한 번쯤은 택시를 타고 나가 역시 무거운 가스를 사와야 하고, 이런 것 외에도 몇 가지 남자들 손이 필요한 일들이 있는데, 물론 공동 생활에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매번 부탁하는 것은 미안하다.

한 번은 물이 다 떨어져 사다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따 사오면 되잖아.”라는 말을 들었다. 물론 유독 피곤한 날이었을 수도, 귀찮게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 순간 ‘물이 나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다 함께 쓰는 것인데. 이럴 거면 힘들어도 그냥 내가 사오고 싶다.’ 생각했고, 그 이후로 무언가 부탁하는 것이 잔소리처럼 느껴질까 싶어 몇 번은 망설여졌다.

하루 나눴이 끝나고, 이보와 둘이 남아 활동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때 이런 불편함을 이야기했더니 이보가 흘려 듣지 않고, 행동의 변화를 보여줬다. 이제 물과 가스는 부탁하기 전에 알아서 사오고, 생활에 필요한 자잘한 물품, 작은 부분도 잘 챙기니 고마울 따름이다.

함께 산다는 것은 한 사람의 게으름이나 개인적인 행동이 곧바로 다른 사람들에게겐 불편함으로 전달되고, 한 사람의 부지런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겐 편함으로 전달(물론 편함에 익숙해지면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된다.

내가 좀 더 부지런해짐으로써, 작은 부분까지 신경 씬으로써, 내 휴식 시간을 조금만 포기함으로써 팀원들이 그 만큼 더 편해질 수 있다는 걸 알지만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란 아직 쉽지 않은 것 같다. 5월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가능할까, 노력해봐야겠다.

숙소 생활은 이렇다 할 문제는 없었다. 주중에는 아띠클라쎄를 하고 주말이면 항상 다같이 놀러 가곤 했다. 4월에는 이곳 저곳 많이 가본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끼리 어디를 가든 같이 갔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다. 센터에서 아이들과 정신 없이 뛰놀고 나면 집에 오는 길에 피곤이 확 몰려왔었다. 체력이 많이 아쉬운 한 달 이였다. 내 지금 상태를 보면서 아이들과 놀아야 하는데 놀다 보면 그런 게 생각날 리 없었다. 힘이 들면 들수록 말이 없어졌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다. 4일 정도는 이명이 나면서 머리가 계속해서 어지러웠다. 그 때에는 센터에 가는 게 버거웠고, 어떤 것을 하든 스트레스만 많이 받았던 것 같다. 아이들이 보기에 별로 안 좋아 보였는지 몇몇 아이들은 아프냐고 물어오기도 했다. 내 나름 아이들에게는 티를 안 낸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많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에게 장난치고 도망가고를 반복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며 차츰 회복되었던 것 같다. 숙소에서 나는 여전히 말이 별로 없다. 말을 해야 될 때 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어렵다. 아직까지는 많이 어렵다.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편으로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는 내 손에 달린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4월을 반으로 나눴을 때 극과 극으로 나뉘었던 것 같다.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을 느끼면서 행복했지만 한편으로는 정신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던 한 달이었던 것 같다.

두 달째 생활을 하면서 숙소에서 많이 들었던 생각은 우리 팀이 성공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비단 활동에만 달려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활동이 아무리 성공적이어도, 센터 아이들이 아무리 우리를 좋아해준다고 해도 막상 우리 네 명의 관계가 탄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관계를 위해서 활발한 팀 내 소통은 무척이나 중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팀이 수다스러운 것은 참 좋은 일이었다. 우리들은 늘 나눔 회의가 길어서 힘들어 하다가도 막상 회의가 끝나면 두세 명이 모여서 한두 시간은 더 떠들어야 잠이 들었다. 게임을 하자고 모이면 벌써 두 달째 똑같은 게임만 하는 거면서도 늘 매일 매일 처음 하는 것처럼 몰입해서 했었다. 게임도, 길고 길던 나눔 회의도, 그리고 회의가 끝난 뒤에 이어지는 수다스러운 휴식 시간도 우리 팀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시간이었다.

또 간사님과 함께하는 식사시간 역시 4월 숙소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과였다. 식사 시간에는 밥 먹는 것보다 밥을 다 먹은 뒤에 나누는 이야기들이 더 기대 되고, 더 즐거웠다. 우리끼리는 알 수 없는 딜리 생활의 팁도 많이 들었고, 우리가 모르는 센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우리의 딜리 생활이 지금처럼 풍부할 수 있었던 데에는 같이 생활하시는 콜라라 간사님과 창효 간사님의 도움이 컸던 것 같다.

앞으로도 우리 팀이 숙소 생활에서 이런 대화의 시간들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4월의 사진전













J. Kowling

TOMODACHI

100 bailli

PA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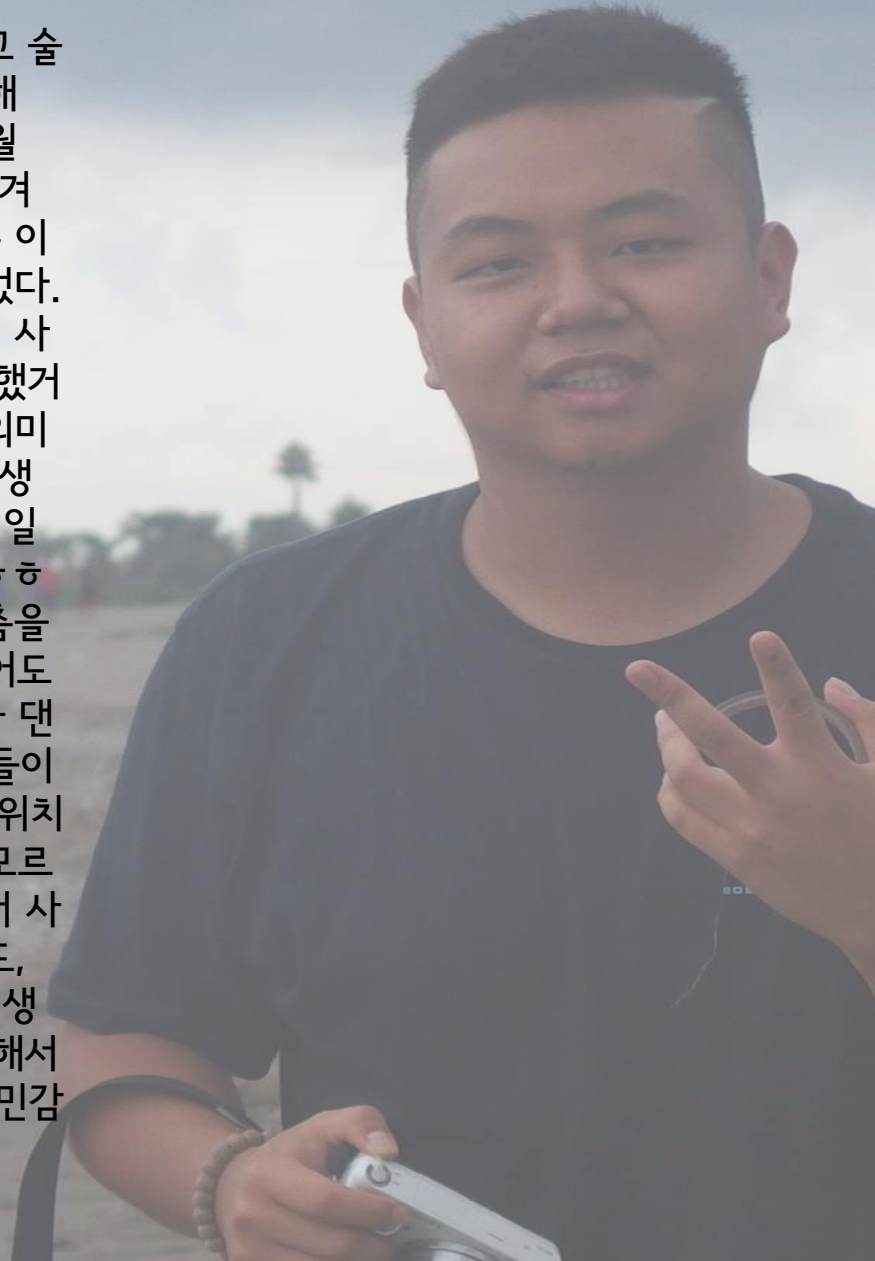






개인 에세이

라운아띠를 갔다 오기 전 친구들이 라운아띠 갔다 오면 철 들고 술도 좀 줄이고 살도 빼고 건강한 생활을 배워서 오라고 이야기해 내가 다시 태어나서 돌아온다고 장난스럽게 이야기 했었다. 4월 중순경 “나에게 라운아띠란?” 동영상을 찍어서 편집할 일이 생겨서 스스로 골똘히 생각하게 되었다. 3월, 4월이 지나면서 혹은 이 전부터 생각은 했었지만 내가 선택한 단어는 “다시 태어남”이었다. 이렇게 사용하니까 뭔가 예전에 큰 잘못을 하고 이제 반성하는 사람처럼 쓰이긴 했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살면서 내가 가지지 못했거나 가졌지만 불완전 했던 점들을 다시 확인하고 생각해 보는 의미로 사용했다. 4월의 지금 부끄럽지만 조금은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이 든다. 물론 처음보다 살도 많이 빠지고, 술도 자연스럽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맥주 1캔 정도 마시고 지내고 있다 ㅎㅎㅎㅎ 한국에 있을 때 음치에 박치에 춤이라곤 해본 적도 없었으며(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기는 했음) 심지어 영어도 잘 하지 못하는데 내가 아띠 클라씨 수업을 진행하면서 노래와 댄스를 가르쳐주고 영어까지 가르쳐주고 있다.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들으면 깜짝 놀라기도 한다. 또한 앞에 나서기 보다는 중간의 위치에서 어울리려 했지만 한 두 번 시도하면서 이제는 자신 있게 모르는 아이들 모르는 마을 청년들에게 나서서 노래 부르자, 나서서 사진 찍자, 나서서 같이 하자를 말하게 되는 것 같다. 이상한 춤도, 못하는 노래도 숙소에서 마을에서 매번 부르고 추고 지내면서 생활을 한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소질이 있어서 혹은 잘해서 자신감이 생기기 보다는 못하지만 부족하지만 남의 시선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고 스스로를 조금 내려놓는 방법을 아는 것 같다.





때로는 센터에서 내가 간혹 표정을 잘 숨기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들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힘든 표정, 지친 표정을 짓고 있을 때도 있었다. 3월에 내가 웃는 얼굴을 만들고 싶고 실천을 했다고 했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피곤함이 드러난 것 같았다. 그 때 청소년 아이들이 갑자기 내 표정을 보더니 “Ivo la contenti la hamnasa.”(Ivo는 행복하지 않고 웃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 순간 표정이 더욱 관리가 안되고 민망하고 미안했다. 그 때 5~6명 되는 아이들이 갑자기 “Kontenti!! Kontenti!! Kontenti!!!”(행복해!! 행복해!! 행복해!!)를 연발하며 나에게 웃으며 합창을 하였다. 순간 참 고마움을 느꼈고 함박 웃음을 터트린 것 같다.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웠다. 그러면서 한 달 사이에 센터에서 고민과 숙소에서의 고민이 늘었으며, 피곤하게 생활한 점들을 숨기고 있다가 들킨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을 보면 기분 좋고 웃는다고 생각을 한 내 자신도 부끄러워지기도 했다. 내가 생각한 센터 활동과 수업은 온 학생들이 재미있게 놀고 가는 것을 생각했지만 나 스스로 웃지 않고 그들을 맞이하고 있다는 생각에 반성도 했던 한 달이었다.

그리고 3월 보고서에 내가 떼뚝을 스스로 잘 못한다고 적었고 사실 많이 늘지도 않은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을 떼뚝으로 적으려고 한다.

**Hau gosta kanta ho dansa, Halimar hamutuk,
Hau hakarak imi kontenti iha-tera santa tamba hasolu Raonatti
ho halimar Raonatti**

Hau dala balak kolen maibe simple diak tamba imi mai centro
(나는 노래와 댄스를 좋아하고 함께 하고 싶다.)

나는 너희가 라온아띠를 만나고 라온아띠와 놀면서 센터에서 행복하기를 바란다.

나는 자주 피곤하지만 너희가 센터로 오기 때문에 항상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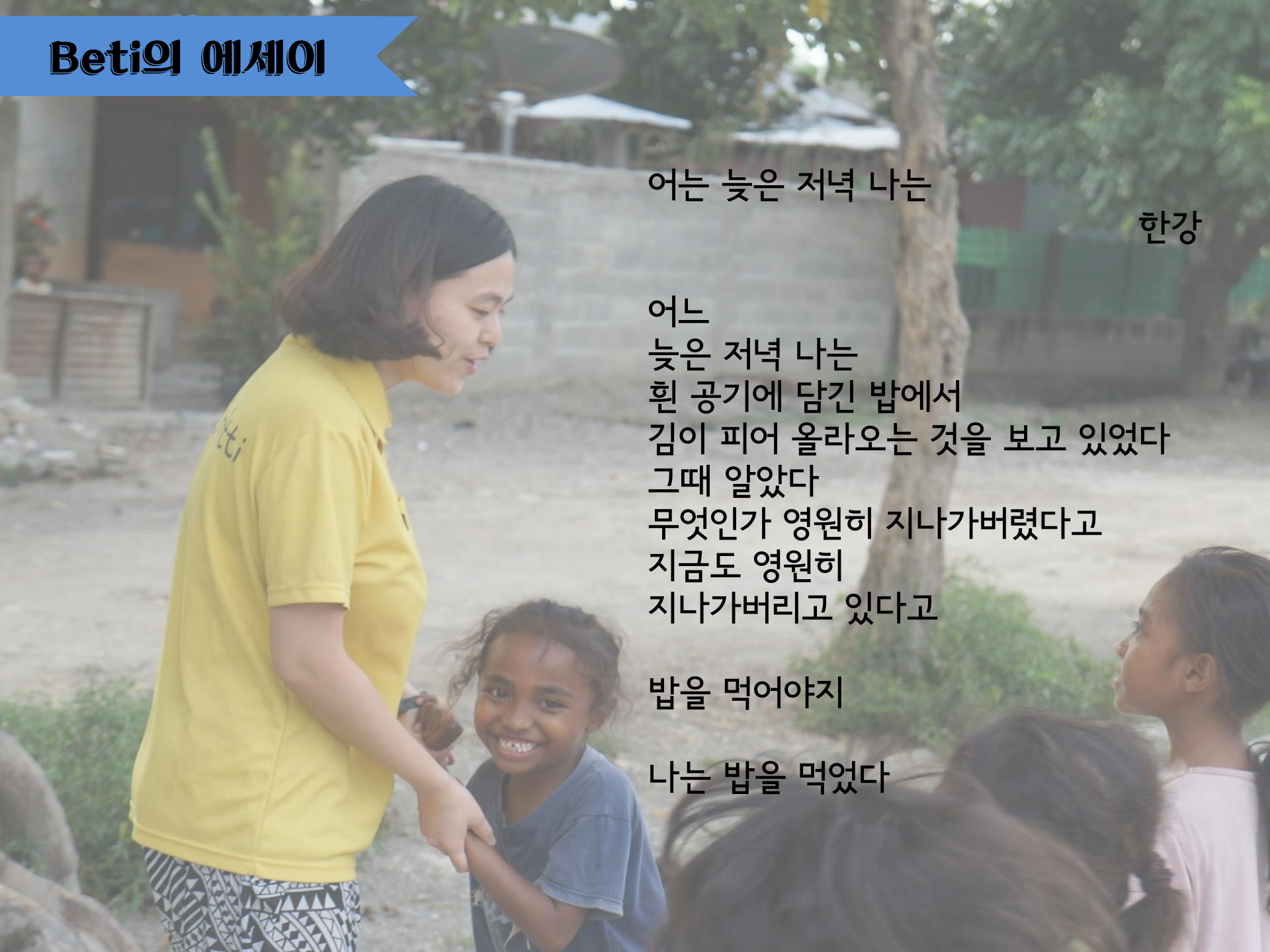
어느 늦은 저녁 나는

한강

어느
늦은 저녁 나는
흰 공기에 담긴 밥에서
김이 피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때 알았다
무엇인가 영원히 지나가버렸다고
지금도 영원히
지나가버리고 있다고

밥을 먹어야지

나는 밥을 먹었다



Beti의 에세이

무슨 생각으로 라온아피에 지원했던가? 어떤 라온아피가 되고 싶은가? 이곳, 테라산타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요즘 다시금 이 질문들에 대해 생각한다. 면접에 합격하기 위해서도,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찬 마음에서도 아니고, 티모르 생활 두 달 차, 이전 제법 적응을 해 많은 것들에 익숙하고 편안해진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

4월의 시작은 많이 아팠다. 고열과 복통으로 며칠을 누워 보내면서, 하루에 병원을 두 곳이나 들러 여러 검사를 하면서, 이대로 내가 조기 귀국을 하면 어떻게 하지- 생각했다는 이보와 리사의 말을 들으면서, 어쩌면 조기 귀국이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처음으로 진지하게 두려웠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라온아피로 최종 선발되고 (그것도 대학 졸업을 앞두고), 먼 나라, 티모르까지 왔는데, 그리 허무하게 돌아가는 건 아쉬움이 너무 클 것 같았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은 오직 나를 생각한 두려움이었다.

다행히 금방 몸이 낫고, 아피클라세를 준비하고 홍보하고 시작하면서 몸과 마음이 바빠지자 마치 아픈 적이 없었던 것처럼 조기 귀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렇게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아이들이 몸으로 놀아달라며 차례차례 줄까지 서있는데, 어린 아빠피가 다가와 말했다. 내가 이렇게 몸 놀이를 많이 하면 피곤해지고, 그러면 아플 수 있고, 아프면 일찍 한국에 가야 한다고, 그럼 자기는 내가 보고 싶고 슬플 거라고. 이전까지 조기 귀국은 나와 팀원들의 문제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때 처음으로 느꼈다. 이는 아이들도 함께 겪을 수 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비단 조기 귀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요새 아리따가 자주 하는 말은 “Hau Trisit.(나는 슬퍼요)”다. 뭐 때문에 슬프냐고 물으면 대답은 한결같다. “Tamba hau hadomi bin Beti.(왜냐하면 나는 베틀을 사랑해요)”

아리따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이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이 왜 슬퍼야 하는 걸까? 우리에게겐 아직 3개월의 시간이 남았는데, 아리따는 왜 벌써부터 이별을 떠올리는 걸까?

Beti의 에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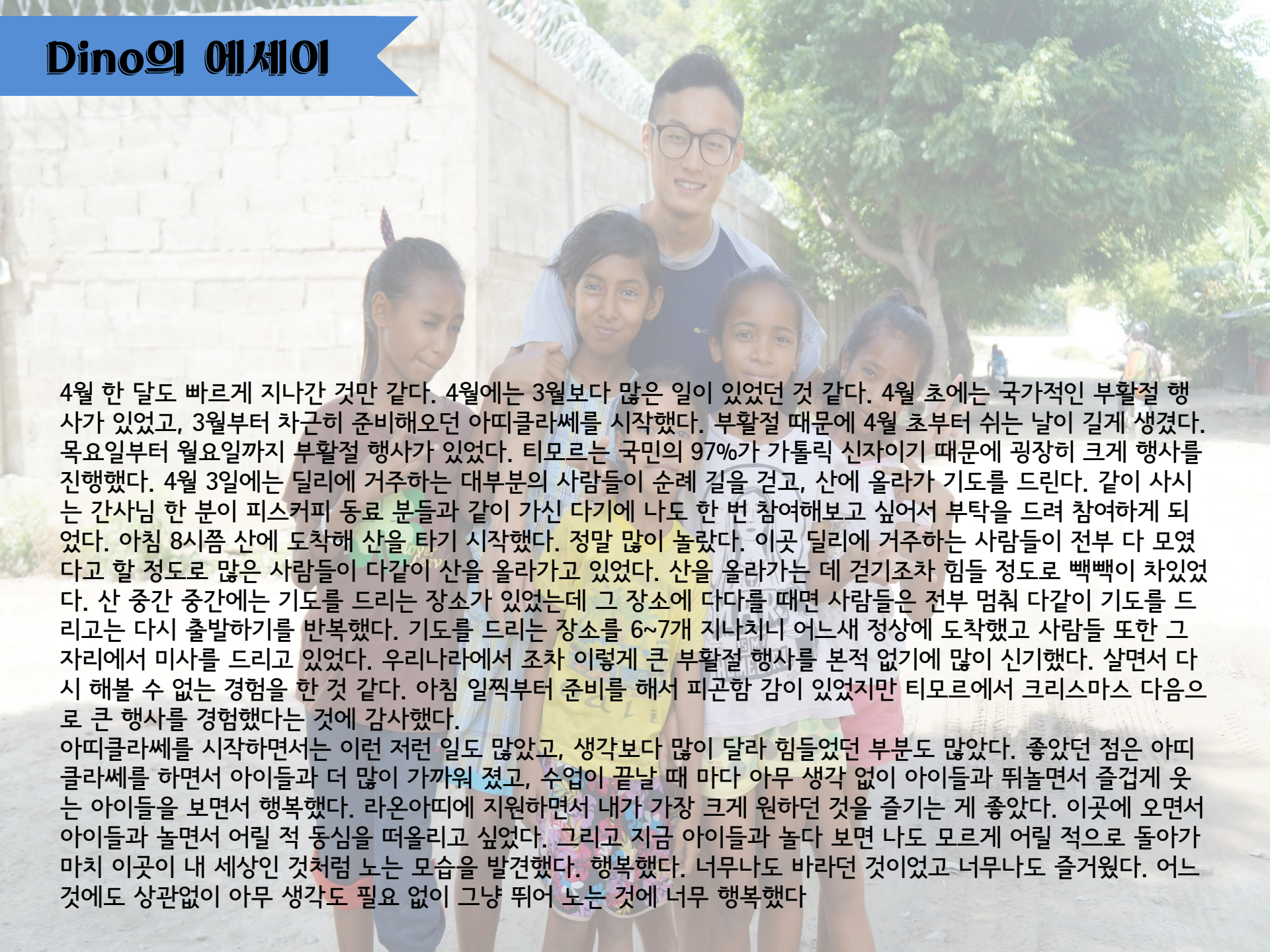
오전과 오후, 우리가 센터에 막 도착했을 때와 집으로 가는 미끄롤렛을 탈 때, 아리따는 우리를 껴안고 우리에게 뽀뽀하며 반복해 이 말을 한다. “Hau tristi. Hau hadomi.” 그럼 나는 아리따를 꼭 껴안고 아리따 뺨에 입을 맞추고, “Hau hadomi Arita. Hau gosta Arita.(나는 아리따를 사랑하고 좋아해)” 이 말만을 반복할 뿐이다.

생각해보면 3월부터 많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우리에게 물었다. 언제 한국으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티모르에 다시 오기 힘든 이전 기수들을 아직도 많이 그리워하고 있다.

라운아띠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60명의 단원이 개인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 내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루하루 돌아갈 날이 다가올수록 내가 티모르에 온 것이 나쁜 아니라 이들에게도 좋은 일인지, 반 년마다 누군가와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하고 그것에 익숙해지는 게 이들에게 괜찮은 일인지, 라운아띠 개개인이 성장하는 만큼, 이들도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갖게 되는지 알 수 없단 생각에 마음이 불편하고 갑갑하다. 물론 누군가는 적어도 이들 유년의 추억 한 조각 정도는 선물하지 않았느냐고, 이별 없는 만남이 어디 있겠느냐고, 함께 한 시간이 행복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냐고 말할 수도 있지만 글썽, 잘 모르겠다. 정말 그거면 되는 건지, 충분한 건지. 내가 이 곳에 와, 이 예쁜 아이들을 만난 것이, 아이들을 맘껏 사랑하고 사랑 받는 일이 잘 하는 일인지.

저 멀리서 아빠띠와 타피가 “Bin Beti” 외치며 달려와 내 품에 뛰어드는 순간마다, 미술 수업 시간, 자신감 가득 찬 얼굴로 “Hotu”를 외치는 장난꾸러기 남자아이들을 볼 때마다, 언제나 공손한, 그래서 더 예쁜 노파를 볼 때마다, 나를 사랑하는 게 슬프다는 아리따를 볼 때마다, 부쩍 표정이 밝아진 모범생 아비나를 볼 때마다 나는 생각한다.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런 순간들이 영원히 지나가버리고 있다고. 그래, 어찌면 두려운 것은 남겨질 테라산타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을 두고 돌아선 이후의 내가 느낄 감정들인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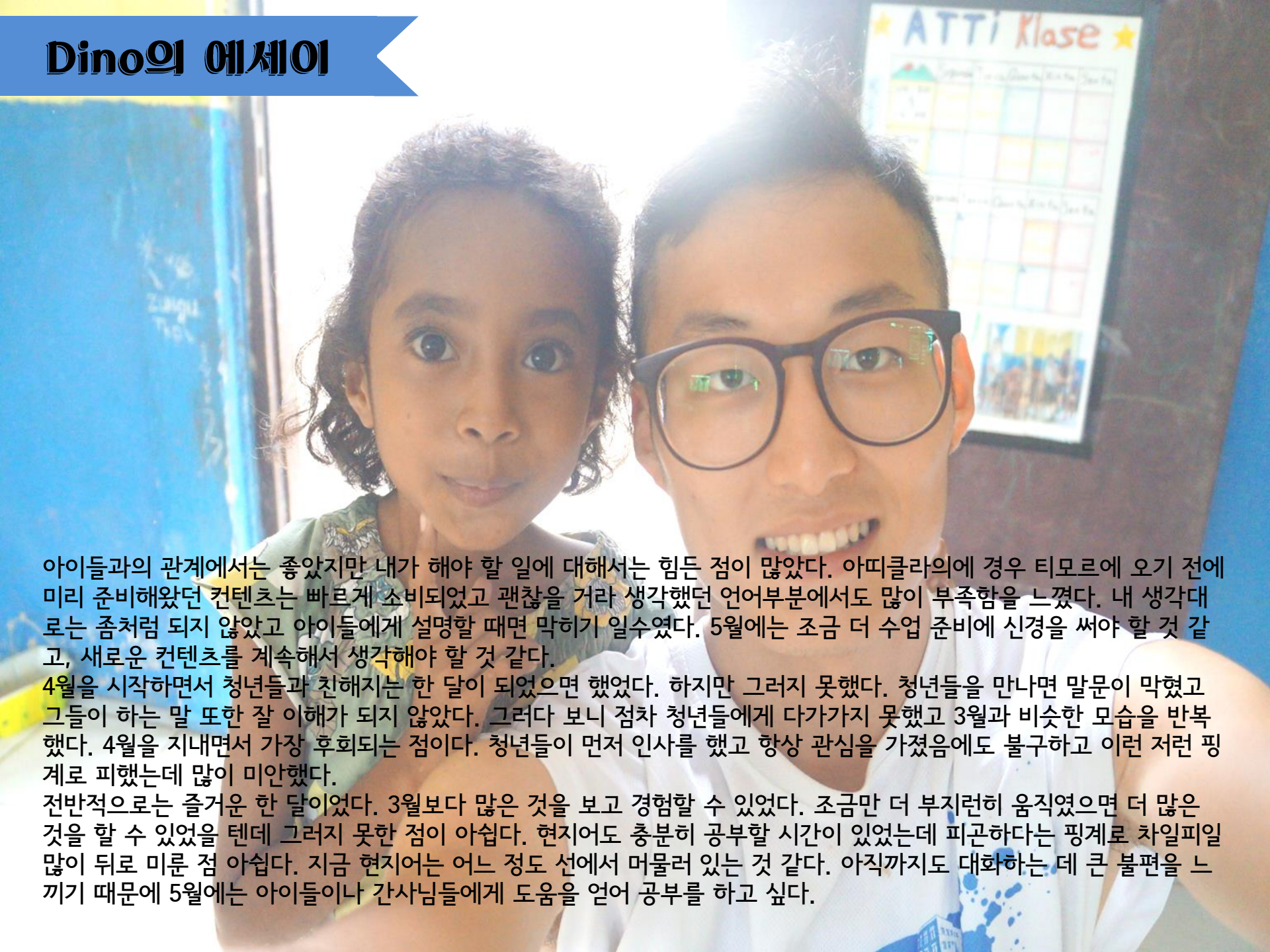
Dino의 에세이



4월 한 달도 빠르게 지나간 것만 같다. 4월에는 3월보다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다. 4월 초에는 국가적인 부활절 행사가 있었고, 3월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오던 아띠클라쎬를 시작했다. 부활절 때문에 4월 초부터 쉬는 날이 길게 생겼다.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부활절 행사가 있었다. 티모르는 국민의 97%가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행사를 진행했다. 4월 3일에는 딜리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례 길을 걷고, 산에 올라가 기도를 드린다. 같이 사시는 간사님 한 분이 피스커피 동료 분들과 같이 가신 다기에 나도 한 번 참여해보고 싶어서 부탁을 드려 참여하게 되었다. 아침 8시쯤 산에 도착해 산을 타기 시작했다. 정말 많이 놀랐다. 이곳 딜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모였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다같이 산을 올라가고 있었다. 산을 올라가는 데 걸기조차 힘들 정도로 뻑뻑이 차있었다. 산 중간 중간에는 기도를 드리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 장소에 다다를 때면 사람들은 전부 멈춰 다같이 기도를 드리고는 다시 출발하기를 반복했다. 기도를 드리는 장소를 6~7개 지나치니 어느새 정상에 도착했고 사람들 또한 그 자리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조차 이렇게 큰 부활절 행사를 본적 없기에 많이 신기했다. 살면서 다시 해볼 수 없는 경험을 한 것 같다.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해서 피곤함 감이 있었지만 티모르에서 크리스마스 다음으로 큰 행사를 경험했다는 것에 감사했다.

아띠클라쎬를 시작하면서는 이런 저런 일도 많았고, 생각보다 많이 달라 힘들었던 부분도 많았다. 좋았던 점은 아띠클라쎬를 하면서 아이들과 더 많이 가까워 졌고, 수업이 끝날 때 마다 아무 생각 없이 아이들과 뛰놀면서 즐겁게 웃는 아이들을 보면서 행복했다. 라온아띠에 지원하면서 내가 가장 크게 원하던 것을 즐기는 게 좋았다. 이곳에 오면서 아이들과 놀면서 어릴 적 동심을 떠올리고 싶었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과 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릴 적으로 돌아가 마치 이곳이 내 세상인 것처럼 노는 모습을 발견했다. 행복했다. 너무나도 바라던 것이었고 너무나도 즐거웠다. 어느 것에도 상관없이 아무 생각도 필요 없이 그냥 뛰어 노는 것에 너무 행복했다

Dino의 에세이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는 좋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힘든 점이 많았다. 아띠클라키에 경우 티모르에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왔던 콘텐츠는 빠르게 소비되었고 관촬을 거라 생각했던 언어부분에서도 많이 부족함을 느꼈다. 내 생각대로는 좀처럼 되지 않았고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면 막히기 일수였다. 5월에는 조금 더 수업 준비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할 것 같다.

4월을 시작하면서 청년들과 친해지는 한 달이 되었으면 했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청년들을 만나면 말문이 막혔고 그들이 하는 말 또한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점차 청년들에게 다가가지 못했고 3월과 비슷한 모습을 반복했다. 4월을 지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점이다. 청년들이 먼저 인사를 했고 항상 관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핑계로 피했는데 많이 미안했다.

전반적으로는 즐거운 한 달이었다. 3월보다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었다. 조금만 더 부지런히 움직였으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쉽다. 현지어도 충분히 공부할 시간이 있었는데 피곤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많이 뒤로 미룬 점 아쉽다. 지금 현지어는 어느 정도 선에서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아직까지도 대화하는 데 큰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5월에는 아이들이나 간사님들에게 도움을 얻어 공부를 하고 싶다.

4월이 지나고, 두 달간의 내 모습을 되돌아보면 나는 한 달 동안 꽤 많이 부지런했다.

라온아띠가 되기 전 게으른 내 모습에 늘 자책했던 걸 생각하면 긍정적인 변화다. 아직 점심 시간에는 늘 낮잠을 자야 하고, 신년 다짐이었던 8시 전 기상도 거의 해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나치고는 참 많이 부지런해졌다.

실은, 게으름이 부지런함으로 바뀌었다기 보다는 무기력함이 생동감으로 바뀌었다는 말이 더 맞을 지도 모른다.

매일매일 수업을 준비하고, 센터와 숙소에서 늘 뭘 하고 놀까 궁리하는 지금 생활이 내게는 생동감으로 다가온다. 뭘 준비해가면 아이들이 재미 있어 할지 고민했다가, 그걸 수업 시간에 했을 때 정말 반응이 좋으면 느껴지는 뿌듯함과 고마움이 참 즐겁다. 3월에 센터를 다녔던 것도 재미있기는 했었지만, 지금은 뭐랄까, 할 일이 있어서인지는 모르지만 생활이 더 알차다는 느낌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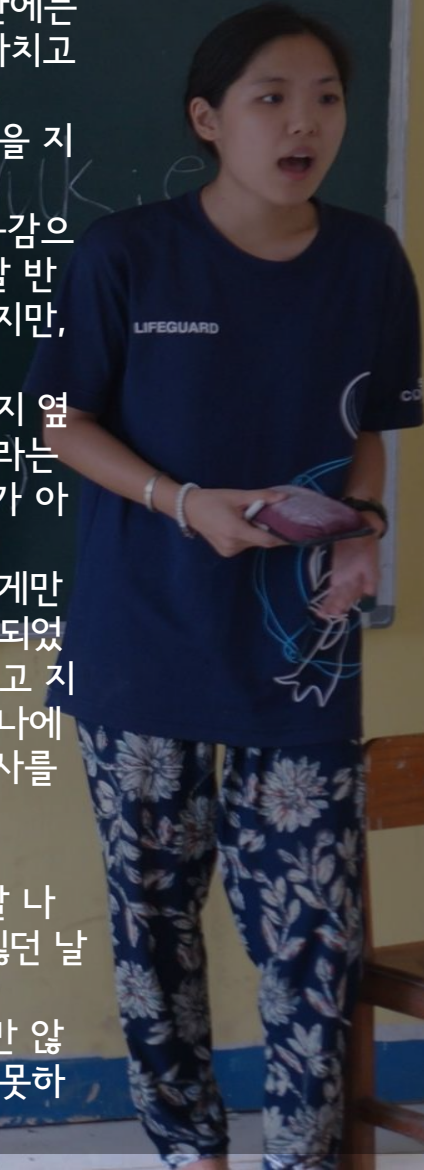
더군다나 지금 우리는 센터에 우리보다 먼저 와서 우리가 미끄롤렛을 타고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옆에 있어주는 아이들에게서 정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다.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가면 좋을 텐데, 라는 말을 해주는 아이들이 고맙다. 이 아이들이야말로 내게 생동감을 선물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한다.

사실 원래 나는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다. 비판적이고, 무기력하고, 다른 사람들을 늘 낯설게만 보는 게 내 성격이었다. 두 달 동안 그나마 이렇게까지 낙관적으로 내 생활을 되돌아 볼 수 있게 되었던 건 아마도 테라산타 사람들과, 아이들과, 그리고 간사님들 덕분에 정말 말 그대로 무장해제하고 지냈기 때문일 것이다. 온지 2달이 다되어 가는 데도 떼뚱을 잘 하지 못해 매번 말을 못 알아 듣는 나에게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는 마을 아주머니들, 오다가다 인사 밖에 하지 않는 우리에게 꾸준히 인사를 해주는 조벤들, 수업 인원 걱정할 필요 없이 성실하게 와주는 아이들...

그런 모두가 있어서 지금의 내가 정말 오랜만에 '나아지고 있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실은 4월에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한국 생각에 울적한 때도 있었고, 수업이 잘 안돼서 그날 나뭇을 쓰면서 한숨을 푹푹 쉬던 날도 있었다. 숙소 생활이 불편하던 날도, 피곤해서 센터에 가기 싫던 날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글을 쓰는 나는 참 만족스럽다. 다만, 내 체력이 금방 바닥나버리지만 앓기를 바란다. 조금 더 힘내서 부디 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딜리에서의 모든 생활을 다 즐기지 못하고 날려버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4월에 센터는 마다 우디스도 잘 모르는 foun(새로운)으로 가득 찼다. 이래도 괜찮은가, 너무 센터에서 먼 아이들이 오는 게 아닌가 걱정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원래 오던 아이들의 발길이 조금씩 뜸해지자 그런 걱정은 더욱 많이 들었다.

그러다가 마나 우디스가 우리에게 새로운 라온아피가 온 것이 이 아이들에게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고 말해주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놓였었다. 그냥 아이들이 멀리서 오는 게 우리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는 거다, 생각하기로 했다.

실은 원래 우리가 아피 클라쎄를 홍보할 때는 갈 수 있는 곳도, 아는 곳도 적어서 기껏해야 출퇴근 길, 센터 주변, 운동장 근처 썸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의 전부였다.

그런데 2주 뒤에 조벤 홍보를 했을 때는, 아이들과 손을 잡고 다니면서 그보다 두 배는 많은 길을 다닐 수 있었다. 아이들과 손을 잡고 다니면서 내 집이 여기다, 재는 여기 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아이들 덕분에 낯선 길도 편하게 다녔던 것 같다.

멀리 살던 아이들이 센터에 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기분도 느낄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한다.

조벤 홍보를 하고 나서 나는 이제 센터의 아이들이 바뀐 다든가, 기존 아이들이 안 온다든가 하는 걱정은 하지 않는다.

3월에 오기 시작했든, 4월에 오기 시작했든 우리의 센터에 와주는 것은 똑같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5월에 만나요